



한국가톨릭약사회 Korea Catholic Pharmacist Association

2006.6월~9월 사업실적

- 2006. 6. 10 정기임원모임(장소: 가톨릭회관 3층)
 - 논의사항: 성가복지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법과 총회일자 결정(2006. 11. 11 또는 12. 9)
- 2006. 9. 4 서울대교구평협주최 교구내 단체장, 평협임원 합동연수 참가(회장)
- 2006. 9. 4~ 9. 12 해외의료선교 몽골지역 사업참여(가톨릭의료협회 주관사업)
- 2006. 9. 9 교구 운동단체, 친교와 나눔의 행사 참가(회장)
- 2006. 9. 19 가톨릭 약사회원 명단확인 작업 착수(대한약사회 협조)
- 2006. 10. 2 회원명단 확인 1차 완료(서울, 의정부, 동두천지역 1,300여명)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The Korea Catholic Nurse Association

'전국 가톨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연합피정' 실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8월 26일(토)~27일(일) 전주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전국 가톨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연합피정'을 실시하였다. 전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손을 펴라"는 주제로 19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첫째 날에는 이병호 주교님의 인생의 철학이 담긴 특강으로 참가한 회원들의 신앙심 증진에 많은 은총을 입었으며, 둘째 날에는 성지순례를 하였다. 성지순례는 전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지도신부님의 설명과 안내로 치명자산(승암산)의 순교복자 유 요한과 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묘를 참배하였으며, 유서 깊은 전통성당 방문과 인근의 경기전, 전통한옥마을 등의 관광지를 관람하였다.

35명의 가톨릭간호대학생들도 참석하였는데 2005년도에 설립된 가톨릭간호학생회의 새 회장으로 김광렬(우석대학교 간호학과), 부회장으로 조은지(고려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 선출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골육종 치료후보물질의 발견 및 분자메커니즘 규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장영재 교수팀은 골육종 세포주에서 항암치료 후보물질인 아스코클로린(Ascochlorin)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 EGFR) 단백질 발현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단백질체학(Proteomics)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저널인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8월 31일자 온라인 판에 소개됐다.

간호학과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 발표회 열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주최, '간호학과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 발표회'가 9월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리아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구현영 학과장은 개회사에서 "개교 이후 많은 학부 졸업생들과 대학원 석사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6 「참빛제」 축제-바자회, 강좌 등 다양한 행사 열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2006 참빛제'가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마리아관 옆 병원 주차장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사랑과 봉사, 젊음과 열정을 위하여'라는 모토 아래, 의과대학이라는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

어나 병원 교직원 및 환우와 지역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대학 축제라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기존 의과대학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헌혈 동참 서명, 일반인을 위한 응급의학 강좌, 병리학 교실 전시회 등 참신하고 뜻깊은 행사들이 열렸다. 정태영 기자



대구파티마병원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과정

대구파티마병원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김천 파크호텔에서 주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 등 60명을 대상으로 '성과창출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초급 관리자들은 본 교육을 통하여 혁신 리더가 갖추어야 할 행정경영 마인드와 자기관리 스킬, 혁신과제 도출 능력 등을 습득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칭찬과 자리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다.



제2차 대구파티마병원 & 서울아산병원 심포지엄 개최

대구파티마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9월 23일 대구파티마병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봉직의 및 개원의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내년에도 서울아산병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며 강임주 의무원장은 “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꾸준히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 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에는 교수협의회장 고효진(정신과) 과장과 교수회의 총무 이동호(외과) 교수가 자리에 함께 했으며, 전달에 앞서 박석영 의무원장은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도강 교수는 정년 후에도 본원 산부인과 폐경기 클리닉을 담당 운영하게 된다.



소화기센터 개설 축성식

지난 10월 4일 소화기센터 외래에서 병원장과 내외과인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센터 개설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소화기센터는 각종 검사실을 완비하고 있어 관련된 모든 검사를 소화기센터 내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유영희 병원장은 더욱 빠른 검진과 정확한 진료를 통한 환자의 빠른 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곽동현 기자



‘1004 Day’ 맞아 시민의료 봉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10월 4일 ‘1004 Day’를 맞아 상지관 1층 로비에서 건강한 추석맞이 시민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대전성모병원 간호사들은 추석을 앞두고 병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일일이 혈압과 혈당검사를 해주고 간단한 상담도 했다. 또한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길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다.



대전성모병원

김도강 교수 감사패 전달식 가져

지난 9월 14일 의무원장실(의무원장 박석영 교수)에서 산부인과 김도강 교수(전 의무원장 역임)의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

주로서는 달리기, 광장에서는 의료지원

대전성모병원 성모마라톤 동호회(회장 박국환)는 지난 9월 17일 제7회 대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림에도 참석한 회원들은 주로서는 달리기를, 광장 마당에서는 의료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마라톤 주자들에게 대전성모병원의 위상과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다. 구급차와 의료

진이 함께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달림이들의 건강을 위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본원을 알리게 되어 일석이조의 홍보 효과를 거두었다. 박제근 기자



메리놀병원

신경과, 세계 치매의 날 맞이 특강 개최

신경과에서는 '세계 치매의 날'을 맞이하여 9월 20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부산·경남 치매학회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강좌 및 치매 무료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날 신경과 최문성 과장은 '치매와 기억 장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서서히 진행되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치매의 원인과 치료법 및 치매의 종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마련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 및 질의 응답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내분비대사내과, 무료 당뇨 교실 실시

내분비대사내과 석지혜 과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무료 당뇨 교실'에서는 9월 13일부터 매주 2, 4주 수요일 오후 2시 7층 도서관에서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환자의 발

관리와 인슐린 주사요법, 효율적인 식사요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당뇨 뷔페를 통해 환자들이 직접 자신의 열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 음식을 선정하고 식사를 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진료부, 의료분쟁 세미나 개최

진료부에서는 9월 21일 오후 6시 코모도 호텔에서 진료과장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법무법인 청해의 박행남 변호사는 의료소송 절차와 의료인의 주요 의무를 설명한 후, 의료분쟁 소송건으로 다루어졌던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노인층 의료사고 및 수술을 요하는 분야 등 증가되는 의료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학적 대책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실시되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점증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함께 하였다. 박서현 기자



부산성모병원

영화·드라마 촬영지 각광

부산성모병원은 올해 6월초 개원한 이래로 영화, 드라마 촬

영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촬영이 줄을 이으면 서 병원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시 자연스레 쾌적하고 최신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홍보효과가 있다”면서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생소한 구경을 위해 누워있던 환자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촬영장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며 병원 생활에 따분한 환자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병원이 추구하는 정신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직원 수화교실 수료식... 청각장애인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
 지난 9월 5일 부산성모병원(병원장 이종길)에서는 제4회 수화교실 수료식이 있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점점부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총 12명이 6개월에 걸쳐 탄탄한 수화교육을 받았으며 청각장애인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한 실력으로 수료를 하게 됐다. 병원에는 수화교실을 통해 지금까지 40여 명의 직원들이 병원 곳곳에서 청각장애인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의료협력병원 협약
 부산성모병원은 9월 8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아산병원과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상호 발전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료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종길 병원장은 “수화통역진로나 자폐아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특화해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기 위한 병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지키고 일반병원들이 주력하지 않는 특색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특색 있는 병원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파견된 첫 의료지원팀

지난 8월 5일 가톨릭의과대학 성가병원 의료진 및 교직원들은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서 수해복구활동을 전개했다. 청주교구 덕산성당 석근웅 신부의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하루를 보내라’라는 파견 강복을 받고 수해복구 자원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날 성가병원 김형민 의무원장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천만 원을 덕산성당에 전달했으며, 덕산면사무소에 타월 1천 장을 전했다.



최신 장비 갖춘 심장 혈관 촬영실 개설

성가병원은 8월 말 가장 선명한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 최첨단 혈관조영기-필립스 Allura XPER FD 10을 도입하고 최신 심혈관 촬영실(심장내과 과장 김희열 교수)을 개설하였다. 장비들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최첨단 모델들이다. 그리

고 각종 부정맥을 진단하고 빈맥 치료를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어 놓았다. 앞으로 성가심장 센터를 통해 심혈관질환 환자들에게 한 차원 향상된 양질의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가병원, '2006 부천 건강 엑스포' 참가

성가병원은 지난 9월 15일~16일 '뇌졸중 쓰러지면 늦습니다. 조기진단이 최선!'이라는 주제로 부천시와 함께 시민을 위한 건강 축제를 진행했다. 부천시의 병원 및 관련 단체들이 부천 시민들에게 건강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진행한 제1회 건강엑스포였다. 테마건강 강좌의 일환으로 성가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과 김태석 교수의 '노인정신건강' 강의도 진행되었다. 김태희 기자



성가롤로병원

기관지 내시경 1,000례 달성 및 형광 내시경 도입
호흡기내과(이은우 과장)는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시술이 2006년 8월로 시술 1,000례를 기록했으며, 이는 치료적인 내시경에 더 큰 비중이 있어 의미가 더욱더 깊다. 또한 기존

내시경보다 조기 암 발견율이 3배 이상인 광 감응형광내시경(Light Induced Fluorescence Endoscopy) 도입으로 조기 폐암 발견 및 늘어만 가는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280여 평의 고객 쉼터 공간 마련

성가롤로병원은 5층에 병동과 이어진 건물 옥상 280여 평을 이용하여 10월 9일 노천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신체적 불편으로 바깥 산책이 어려운 환우 분들에게 다소나마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쾌유를 위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최첨단 64채널 MDCT 가동 축성식 및 학술 심포지엄

성가롤로병원은 64채널 MDCT를 도입 9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으며, 이 장비는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CT 장비로써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검사가 불가능했던 심장영역과 전신 혈관 부위의 검사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10월 20일 축성식 및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허감 교수를 초빙 학술 심포지엄과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송종남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위험관리, 병원감염 등 QI 교육 4차례 걸쳐 시행

성바오로병원 QI팀은 최근 별관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QI 교육을 했다. 성바오로병원은 비전 실천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가치 중 창의적 자세를 구현하기 위해 전교직원이 한 가지 이상의 QI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경섭 교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차기회장 선임



송경섭 성바오로병원 방사선과 교수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방사선과(영상의학과)의 한 분야로서 방사선과에서 사용하는

투시, 초음파, CT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최소한의 절개로 시행하는 등 현대 의학의 첨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모임이다.

새로운 정맥류 치료 장비 도입



성바오로병원 외과는 최근 새로운 정맥류 치료 장비인 「멀티다이오드 엔도 레이저」를 도입,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다양한 임상 결과 혈관 내 친화성이 높아 치료효과가 우수하고, 기존

장비에 비해 수분은 5배 이상, 옥시헤모글로빈 흡수율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표면에 흉터가 없으며 국소 마취로도 시술할 수 있어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등 환자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권정훈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빈센트 성인 대축일 기념행사 다양하게 마련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주보이신 빈센트 성인의 축일(9월 27일)을 맞이하여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26일 오후 2시 별관 5층 성빈센트홀에서는 관절염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의 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 외 사진전, 퀴즈대회, 대축일 기념미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관절염 건강강좌 500여 명 참여 성황리에 마쳐

성빈센트병원은 9월 26일 별관 5층 성빈센트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신적, 육



체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하느님께 바친 이웃 사랑의 사도, 빈센트 성인의 축일을 맞아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또한 강의 전후로 골다공증, 류마티스 인자, 체성분 등의 검사와 결과 상담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간호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학술대회 대상, 공로상 수상**

성빈센트병원 간호부가 9월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 경기도 간호사회 학술대회”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부 수술실은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술 전 교육이 수술환자의 불안과 활력 징후에 미치는 효과’로 연계를 발표, 대상을 받았다. 또한 인사팀장인 이영자 과장은 경기도 간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바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조성준 기자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해방이념의 구현 리모델링 공사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 리모델



링 공사가 있었다. 6개월 동안 시행된 이 공사는 병원 전체를 개방형 공간으로 꾸며, 정신병원이라는 거부감을 없애고 환우들과 보호자들에게 믿음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공간의 개방과 편의증진은 환우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적 환경의 개선이며,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이 추구하는 해방이념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은 이념의 실현과 정신과 치료환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이상윤 기자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 3년 연속 'A' 평가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A' 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센터로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개원 37주년 기념식

지난 9월 1일 창원파티마병원 제37주년 개원기념식이 5층 강당에서 있었다. 장기근속자 표창, 승진자 사령장 수여, Best People 시상 등 이은 개원기념사에서 병원장은 개원 37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자 일상생활에서의 탁월함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의료지원단 파견

창원파티마병원은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창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하였다.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한국폴리텍Ⅵ 대학 창원캠퍼스에서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응급환자 치료 등의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강민수 기자



인곡자애병원

남자자원봉사단 성지순례 및 기관견학

음성꽃동네에서는 2005년 3월 초부터 사랑의 결핍으로 버려져 길가나 다리 밑,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며 이웃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을 '아나뎀'으로 모시고자 '아나뎀의 집'을 마련하여 이들과 동반하고 있다. 마음의 안정과 체력의 회복을 찾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아나뎀들은 병원 각 부서와 병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에 감사하며 죽산 성지순례와 가평 꽃동네 노체 리안드리병원을 견학하며 보람차고 뿌듯한 하루를 보냈다.

이 호 기자

청주성모병원

2대 병원장에 이현로 신부(토마스 데 아퀴노) 취임

청주성모병원 전임 김홍열 병원장 이임식과 제2대 이현로 병원장 취임식이 9월 28일 오후 5시에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현로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라며 "당면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과 목표를 공동선으로 설정하고 함께 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 만족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대기 기자



포항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오동호 과장, 미국인명정보기관(ABI)로부터 연구자상 수상



류마티스 내과 오동호 과장이 미국인명정보기관(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으로부터 연구자상을 수여했다. 미국인명정보기관(ABI)은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of Cambridge, 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에서 발간되는 인명사전은 미국 하버드대학, 스탠퍼드대학 등의 유명 대학은 물론 미국 국회에도 자료가

제공되는 인정받는 인명기관이다.

사랑나누기 자선바자회

추석을 앞둔 2006년 9월 22일 포항성모병원 주차장에서 “사랑나누기 자선바자회”가 열렸다. 이번에 실시한 바자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환자 그리고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한 알뜰장터와 각종 분식류 등의 먹거리 장터, 추석맞이 선물장터 등 다양한 물품을 직원들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판매하였다. 이번 사랑나누기 자선바자회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판섭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60주년 기념 행사

지난달 12일~14일 동안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동성중고등학교에서 「2006 서울대 교구 청년대회」가 열렸다.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2006 서울대 교구 청년대회 행사는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삶과 경험을 나누고 미래 교회와 사회의 주역으로서 소명을 재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장기 기증, 헌혈, 기념품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산학협력단 『BIO KOREA 2006』 참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 김명석)은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 홍보 및 기술이전 상담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지난 9월 6일~8일까지 코엑스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BIO KOREA 2006』에 참가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스에는 진단검사의학교실 한경자 교수의 ‘용혈성 빈혈검사’, 의공학교실 이형구 교수의 ‘평판형 X선원을 이용한 디지털 X선 영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X선 영상 검출방법’, 서태석 교수의 ‘영상정합 정확성 평가용 팬텀’, ‘전신정위적 방사선 치료를 위한 프레임’, ‘고선량률 근접치료계획 정확성 평가를 위한 팬텀 및 상기팬텀을 갖는 팬텀장치’의 기술이 소개되었다. 특히 의공학교실 서태석 교수의 기술은 시제품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새 교육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른 새 교육목적 및 목표 설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해부학교실



의 김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새 교육목표 설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3일 팔레스 호텔에서 원로교수들을 초청하여 남궁성은 의무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고언을 들었다. 이어 9월 19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및 부속병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김은하 기자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제4회 가톨릭국제줄기세포 심포지엄

가톨릭세포치료단(단장 천명훈)은 지난 7월 14일 가톨릭의과 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국내외 성체줄기세포 전문가 20여 명을 초청해 '제4회 가톨릭국제줄기세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혈액, 신경, 심장, 암, 종양, 내분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난치병에 대한 세포치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추기경이 참석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서울대교구가 생명위원회 발족 당시 기부한 생명신비기금 100억 원의 일부로 준비 중인 임상세포생산시설(GMP)을 공개해 관람하였다.



현대정보기술과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최종계약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최영식 신부)과 현대정보기술(대표 백원인)은 종합의료정보시스템(CMC nU : neuro-Ubiquitous)에 관한 계약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조인식을 지난 7월 20일에 실시하고, 24일 본격 프로젝트 시동에 나섰다. 최영식 원장은 "이번 CMC nU 프로젝트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로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 의료'라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외과 송교영 조교수, 제14차 유럽 복강경 학회(EAES)에서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 수상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외과 송교영 조교수가 지난 9월 13일~1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4차 유럽 복강경 학회에서 '위암에서의 복강경 보조 D2 림프절 절제술(LADG with D2 Lymph node dissection for Gastric cancer)'로 최우수 비디오 연제상(Best Video Presentation)을 수상했다. 송 교수의 연제는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14v번, 11p번 및 8번 림프절을 중심으로 수술 비디오 및 임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진행성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활발해질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제였다.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국제연수회 성료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는 9월 14일~16일까지 대만에서 온 11명과 중국에서 온 1명의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 총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남성모병원과 가톨릭의대 해부학교실에서 제2차 척추인공관절수술 국제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회의 성공적 개최로 말미암아, 지난 4월 20일~22일 개최되었던 제1차 척추인공관절수술 국제연수회

에 이어 척추인공관절 분야의 한국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석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기원 교수, 美 ABI 인명사전 등재



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 김기원 교수는 최근 세계 3대 인명기관의 하나인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서 '2006년 세계 업적상 (Year 2006 Universal Award of Accomplishment)' 을 수상했다. 1995년부터 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 관련 질환을 진료하며 척추 추간판 세포의 특성 및 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기원 교수는 이미 탁월한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2006)와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2005)' 에도 등재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영예를 안았다.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난 생명' ... 베트남 소아 원흥
 휘귀난치성 질환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인 베트남 소아 원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원흥의 사연을 접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베타니아 집' 관계자가 성모병원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투병중인 원흥은 원목실과 사회사업팀, 소아혈액내과팀 등 많은 관계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어리지만 씩씩한 모습으로 낯선 병원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백혈병세포 제거와 정상적인 조혈작용 회복을 위한 항암치료(관해유도요법)를 받았다. 현재는 백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항암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이

다. 원흥의 부모는 "성모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자상한 보살핌과 협조 덕분에 원흥이 치료를 잘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원흥이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실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개원 70주년 기념 '사랑의 개안수술' 50건 돌파!



개원 70주년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사랑으로 밝은 세상 만들기' 개안수술 사업이 4개월 만에 50명의 환우에게 새 빛의 기쁨을 안겨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모병원 안과 과장 문정일 교수는 "성모병원에 있어서 개안수술이 갖는 의미는 시

각적인 불편 해결에 더해 그들이 맑은 눈으로 하느님의 밝은 세상을 영위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며 "내년 2월까지 많은 교우분들께 사랑을 전파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환자에게 골수 기증한 한명의 아름다운 의사

공윤배 전공의(인턴)는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골수를 기증하고자 6월 초 아산병원에서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다. 의대(인하대) 본과 3학년 재학 시 전국의과대학생 골수기증 릴레이 행

사를 접하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을 했다. 공윤배 전공의는 수술 후 고통 중에도 매번 밝은 미소를 띠며 골수 기증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병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수련교육부장, 수련예정과의 과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약제팀 박해자 수녀 미술대회 특선 입상해



가톨릭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약제팀장인 박해자 수녀가 (제2회 대한민국 글로벌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꿈840531' 이란 작품으로 특선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해자 수녀는 "꿈840531의 84년 5월 31일은 내가 수녀로 입회한 날자로, 하느님께서 주신 색과 명암으로 작은 화폭에 나만의 세계를 표현했다"며 "이번 상은 안주하지 말고 더 노력하라고 주신 상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원종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 등재



정형외과 박원종 교수가 2006년 미국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사의 인명사전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박 교수는 뿐만 아니라 'Research Board of Advisors' member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박원종 교수는 골관절 종양에 대한 논문 10여 편을 국제학술공인지(SCI)에 게재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김현석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무혈·무통 암 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

성모자애병원은 지난 10월 첨단 방사선암 치료인 토모테라피를 시작하였고 올해 4월에는 짧은 시간에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64채널 MDCT를 도입하였으며, 이어 수술 없이 초음파로만 암을 제거할 수 있는 하이프나이프를 들여오게 되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무혈·무통의 암 치료기인 토모테라피와 하이프나이프를 동시에 갖추고, 환자에게 고통 없는 암 치료의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개원 51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지난 6월 24일 경찰종합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성모자애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년 만에 재개된 성모자애병원 단합의 축제로 가치창조 원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천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편, 개원기념일인 6월 27일 별관 3층에서 개원기념식을 거행하고, 장기 근속자 표창 실시 및 오후에는 병원장 제정원 신부의 집전으로 개원기념 미사를 거행했다. 권소라 기자

